



소금 창고 그리고 소래염전



소래염전, 1988

인천은 소금의 고장이었다. ‘주안염전’, ‘남동염전’, ‘소래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전국 소금 생산량의 40% 정도를 차지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고참병들이 “인천 사람은 짬물”이라고 구박하기도 했다. 끝 없는 염전의 명물은 검은 소금 창고였다. 촘촘히 서 있는 소금 창고마다 하얀 소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소래염전은 인천 논현·서창·수산동과 시흥 포동·장곡동·방산동·월곶동에 걸쳐 있는 300여 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염전이였다. 1931년 일본인들이 소금을 수탈해 가기 위해 만든 염전은 인천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서려 있는 삶의 터전이였다. 역사와 고향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는 소래염전, 인천의 그 염전이 1996년 7월 30일을 끝으로 모두 사라졌다.

나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소래염전을 20년 동안 쉼 없이 사진 찍었다. 그 사진들로 2006년 12월 사진 책 <마지막 소금밭 소래염전>을 출간했다. 소래염전을 20년 동안 집중해 사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표지 사진
휴가 떠나기 좋은 인천의 바다와 섬
(을왕리 선녀바위, 영흥도 갯벌, 굴업도)

발행인 유정복(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고주룡(대변인)
편집주간 유준호(공보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안영우·홍승훈·류창현·전재천·유승현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될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담당관실 032-440-8306



민선 8기 1주년,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위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민선 8기 인천시가 고진감래 끝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며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굿모닝인천> 7월호는 특집 기사를 통해 민선 8기가 걸어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축하하는 무용 예술이 ‘더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골목길 TMI’는 인천 사람들의 추억과 정서가 곳곳에 흐르는 ‘긴담모퉁이길’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문화 풍속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인천 오감 레시피’에선 영흥도의 ‘바지락 고추장찌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자 백령·대청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지 4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에선 물범이 쉬고 기암괴석의 풍광이 눈을 시리게 하는 백령·대청도를 찾아갔습니다. <굿모닝인천> 7월호를 보며 부족 높아진 인천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재외동포청 유치, 환영합니다 外	45 이미지 뉴스 1,000만 도시 프로젝트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남동구 논현동	46 의회 뉴스 신성장 산업 육성사업 적극 지원 外
06 더 인천 : 민선 8기 1주년 ⑦ 역사의 순간, 춤이 되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	48 인포 박스 경인권역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外
12 특집 민선 8기 1주년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51 줌 인 〈황해문화〉 학술 심포지엄
16 골목길 TMI ⑬ 긴담모퉁이길	52 문화 캘린더 ‘황해를 향해하는 자: 12개의 통로’ 外
22 인천 오감 레시피 ⑦ 영흥도 ‘바지락 고추장찌개’	54 컬러링 인천 팽이부리마을
26 트렌드 인천 2023 ⑦ 코로나19 엔데믹, “반가워! 문화예술”	56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30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⑦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57 편집 후기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 外
36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황길범 강화옹두레질소리 보유자	58 인천의 아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38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④ 런던 리버풀	59 한 컷 인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4주년
42 시정 뉴스 인천대로 지하화, 2027년 준공 목표 外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재외동포청 유치, 환영합니다

우리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후보지로 거론될 때부터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천이 더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도 발전하는 인천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주세요.

— 차성우 동구 금곡로

청년 농부의 힘찬 도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보다 낫다 싶기도 합니다. 〈굿모닝인천〉에서 소개한 청년 농부 기사를 읽으며 힘든 농사에 도전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이병혁 미추홀구 인화로

드론 쇼 현장의 감동을 다시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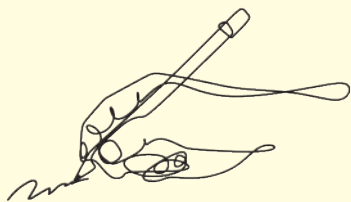
〈굿모닝인천〉 6월호 책장을 넘기다 드론 쇼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5월 17일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감상했습니다. 저와 같은 감동을 하셨다니 반가웠고, 무엇보다 역시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멋진 사진, 제 마음속에 저장했어요.

— 공미현 계양구 계양산로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 탈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교통,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는 분들 덕분이라고. 〈굿모닝인천〉이 인천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많이 발굴하고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 김보라 부평구 원적로



남동구 논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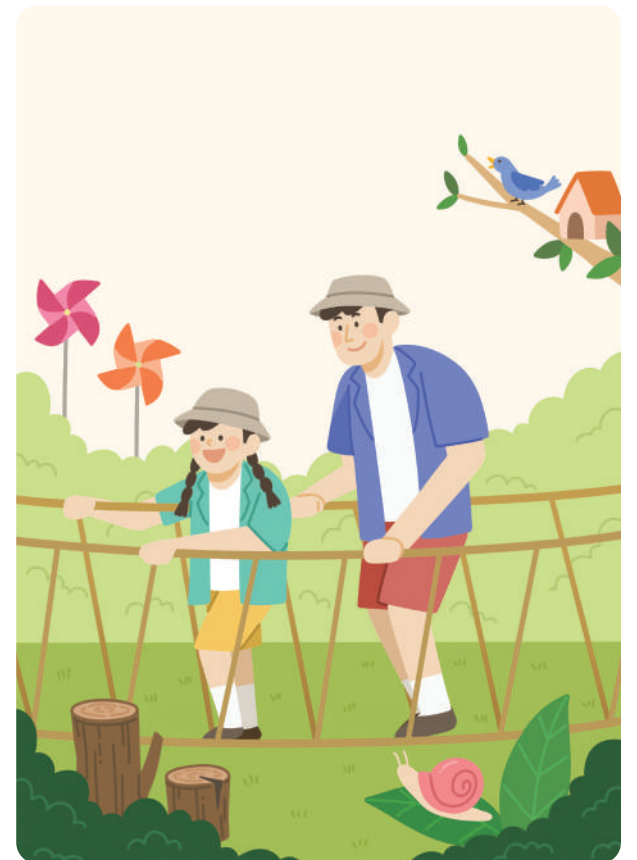
도시 속에서 만나는 푸르른 자연

글 김순곤 남동구 소래역남로

남동구 논현동은 소래포구와 늘솔길공원을 품은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다양하고도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자 주거지로 손꼽힙니다. 소래포구는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소래포구 주변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많아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수인선 협궤열차가 달리던 선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인분당선 열차가 머지않아 함께할 인천발 KTX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논현동을 감싸고 있는 늘솔길공원은 푸르른 자연과 편리한 시설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는 편백나무 숲, 메타세쿼이아 숲, 양 떼 목장, 숲 체험 시설 등이 있어 산책은 물론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 크고 작은 연못과 호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수 주변에 앉아 솟아오르는 분수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위가 싹 가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와 놀이터, 체육 시설 등이 있어 가족, 친구와 함께하기에도 그만입니다.

소래포구와 늘솔길공원은 논현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자랑이자 인천의 명소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바다와 하늘을 감상하는 여유는 이곳만의 자랑입니다. 소래포구와 늘솔길공원이 있어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도 웃음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모습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7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사연이 채택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를 향해 지금 달려갑니다. 꿈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고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지나온 역사가 증명합니다. 10미터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열린 바닷길. 1883년 제물포항으로 개항한 인천 내항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가 힘차게 역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물포 르네상스'로 찬란하게 꽃핍니다.

인천광역시 '민선 8기' 1년.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1,000만 인천 시대 개막.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1,000만 인천이 함께 쓰는 인천의 새 역사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찬란한 이 순간을 기록하고자 <굿모닝인천>이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춤으로 오늘을 기억하고, 이상을 현실로 창조한다.' 인천시립무용단 무용수 3인이 인천의 역사와 오늘, 미래 비전을 현실로 이를 열정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선 8기 1주년' 특별 기획.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 '역사의 순간, 춤이 되다'. 지금, 시작합니다.

기획·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전재천 포토 디렉터

인천시립무용단 무용 박재원·홍수연·정민서 단원 | 안무 정명훈 상임부안무자



춤 영상 보기

민선 8기 1년
역사의 순간, 춤이 되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시대

역사와 미래의 바다 인천내항에서 인천의 시간을 춤으로 표현하는
인천시립무용단 무용가 박재원·홍수연·정민서(왼쪽부터)



부영송도타워가 보이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120년의 기다림. 1,000만 인천의 염원을 담아, 무용가 정민서

공연이 끝나도 삶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세계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무대 조명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서사를 품은 문자의 시대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 너머 ‘재외동포청’이 동지를 튼 부영송도 타워로 시선을 보냅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을 두 손짓으로 정성스레 그러모아 사뭇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다시 온 세상에 전합니다.

인천의 무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입니다. 1,000만 인천 시대를 열며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초석을 공고히 다집니다.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고,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 대한민국 1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등을 갖추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국제도시. ‘인천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세계 10대 도시로 비상하는 지금,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이 기쁨, 행복,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몸짓으로 피어납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힘이 넘칩니다. 살아가는 삶의 경이로움, 1,000만 인천이 함께 쓰는 역사가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집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감각 문자 풍경' 중 '물로 새긴 감각'에서, 무용가 박재원·홍수연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 트라이보울에서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을 담아



인천, 세계로 화려하게 비상

세계 10대 도시로, 꿈을 향해 도약하는 지금.
1,000만 인천이 함께 쓰는 역사의 순간이 춤으로 펼쳐집니다.
힘이 넘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몸짓으로 피어납니다.

꿈을 꾸면, 삶은 빛납니다.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시민이 꿈꾸면 인천시가 반드시 이룹니다.

상상플랫폼에서 내일로 날다. 우아하고, 완벽하게.



촬영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 갑자기 몰아친 폭우도 우리 열정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

잠시 후 거짓말처럼 날이 갹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찬란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인천.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1883년 인천 개항, 힘으로 밀어붙인 뼈아픈 역사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 근 대화와 산업화의 역사를 당당히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로 원도심의 새 미래를 엽니다.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축적한 역사적 경험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아갑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시민이 꿈꾸면 인천시가 반드시 이룹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토슈즈에 갇혀 긴 시간 피나는 연습을 해 다치고 변형된 발레리나의 발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 말합니다. 관객들은 화려한 춤이 펼쳐지는 무대를 바라보고 기억하지만, 무대 뒤에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삶도 그러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스스로를 극복하며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천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봉만리 大鵬萬里. ‘밝은 미래를 위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 치의 빈틈없이 노력한다.’ 우리 시는 시민이 바라는, 시민이 꿈꾸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갑니다.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지난 1년간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세계 10대 도시를 향해 높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무대에 섰을 때 모든 것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렸다.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우아하게 착지하거나 혹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거나.”

- 미스티 코플랜드, 미국 발레단 ‘ABT’ 최초의 흑인 수석 무용수

인천이 세계 무대에 흔들림 없이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 반드시 해냅니다. 하루하루를 일깨우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저 높은 이상을 향해 화려하게 날아옵니다. 꿈을 꾸면 삶은 빛나고, 진심 어린 노력이 있다면 현실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 ‘민선 8기 1년’. 내일이면, 1,000만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섭니다.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 시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대붕만리 大鵬萬里

(봉새는 하루에 구 만리를 간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힘찬 도약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민선 8기는 지난 1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시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왔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였다. 민선 8기가 걸어온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내일을 그려보았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구도심 개선, 지역의 불균형 해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영종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중앙정부와 치열한 논의 끝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천 도심을 단절시켰던 인천대로 지하화를 통해 도로 통행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그 상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린다.

서해5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면서 합의 사항 이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송도 랜드마크 타워, 청라시티타워 등의 핵심 사업도 정상화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인 인천은 초격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센터를 착공했다. 덧붙여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 투자를 확정하고, 10월에는 글로벌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독일 사토리우스의 제조·연구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입지를 강화했다.

모빌리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강화 항공정비(MRO)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BMW R&D센터 유치,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협력체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교류 협력에도 노력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화물기 개조사업, 미국 아틀라스 항공기 중장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항공 정비(MRO)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다졌다.

재외동포청 출범, 1,000만 도시 인천 글로벌 허브도시로 향하는 초석 다져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재외동포 출범 지원단을 가동하고 재외동포 웰컴센터 개소,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등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마련하며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인천의 국제도시 및 비즈니스 역량이 입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 안정 최우선 가치로 설정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팔 걷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난방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시민이 필요한 생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타필드청라 멀티스타디움 건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2045년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GTX-D Y자 노선·인천발 KTX 등 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을 구축한다. 제물포 르네상스,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고 행정체제 개편과 인천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제는 잊을 대는 100년 돌담, 긴담모퉁이길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는 신흥동에서 짜리재로 이어지는 ‘긴담모퉁이길’을 거닐었다. 유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지고 서 있는 100년 돌담길엔 세월이 깃든 집과 오래된 나무, 골목길 사람들이 지긋이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취재 영상 보기

추억이 그리움으로

— 유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지고 서 있는 100년 돌담길, 긴담모퉁이길엔 선 최재용(61) 전[㉮] 언론인은 아스라한 추억 속을 서성이고 있었다. “울목동 231번지에서 나고 자랐어요. 인천기독병원에서 울목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초입이었는데, 집터에 빌라가 들어섰네요. 1960~1970년대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이 길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가난을 식구처럼 달고 살았지만, 열심히 살아낸 그 시절이 추억과 그리움으로 남았다. 첫새벽부터 까까머리, 단발머리 남녀 학생들이 새카맣게 모여들어 학교로 향했다. 인천시립도서관(현 울목도서관 구관)에 좌석을 잡기 위해 성산교회 앞 언덕을 숨 가쁘게 올라가던 일도 정겨운 추억이다. 겨울철마다 눈이 내린 날이면 집집이 연탄재를 가져다 길 위에 깨뜨려 미끄럽지 않게 만들던 풍경도 아롱아롱 떠오른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 박문초등학교 앞에서 군고구마와 고구마탕을 팔던 아저씨. “등근 돋보기를 쓰고, 여기저기 밀가루 같은 것이 묻은 거무죽죽한 잠바 차림에 양팔에는 낡은 토시를 낀… 그 아저씨의 고구마탕 맛에 빠져 5~10원만 생기면 그리로 쪼르르 달려가곤 했어요.”

“긴담모퉁이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땅 이름이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의 뜻을 잃었습니다. 긴담모퉁이길은 이름과 제 모습을 지킨 귀중한 곳입니다.” 시종일관 미소 짓던 그의 얼굴에 저릿한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무성해진 담쟁이넝쿨만 오래된 돌담을 감싸고 있다.



세월이 깃든 돌담길



인천기독병원을 지나 짜리재로 넘어가는 완만한 오르막길



긴담모퉁이집의 정원

긴담모퉁이길 주변의 조붓한 골목엔
작고 아담한 이층집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바지런한 인천 사람들의 거처였을 테다.
빗장을 푼 오래된 집에 오늘의 발길이 이어진다.



2층 일본식 다다미방

신흥동 옛 시장 관사, 긴담모퉁이집

— 울목공원을 오르는 골목길엔 1930년대 일본인들이 문화주택(文化住宅)이라고 부르며 지었던, 남향으로 넓은 창을 낸 작고 아담한 이층집이 남아 있다. 그중 신흥동 옛 시장 관사(1938년 신축)는 인천에서 이름난 ‘좋은 집’이었다. 줄지어 선 고급 주택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위치와 규모 덕분이다.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했다. 이후 이 주택을 매입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람은 ‘형제사’라는 귀금속 전문점을 운영한 이경부(1924~2018) 씨 가족이다. 강화 출신인 이 사장은 광복 직후 배다리 중앙시장 앞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성공을 이룬 뒤 인천의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1960년대 중반 극장에서 처음 애니메이션 광고를 상영했을 정도로 사업 수완이 뛰어났다. 2008년 문을 닫을 때까지 인천의 수많은 예비부부가 형제

사에서 예물을 맞췄다.

화려했던 번성기를 품고 외진 골목에 물러나 있던 신흥동 옛 시장 관사가 최근 빗장을 풀었다. 2020년, 우리 시가 이곳을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이다. 1층 거실은 건축 당시 원형을 대부분 보존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과 서재로 꾸몄다. 거실 정면은 완전히 개방해 정원과 통하게 하고, 2층은 일본식 다다미방의 흔적을 살려두었다.

운영을 맡은 이원영(55) 관장은 “제물포구락부·인천시민에 집·신포시장~답동성당~긴담모퉁이길·긴담모퉁이집을 잇는 ‘제물포 인문 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긴담모퉁이집 중구 답동로12번길 10 ☎ 032-765-0261



긴담모퉁이길 언덕의 풍경

‘지켜줘서 고맙다’는 인사

— 긴담모퉁이길 주변의 조붓한 골목에 최근 옛 정취를 살린 카페가 하나들 생겨났다. 로얄답동맨션 길목의 ‘싸이프러스 카페’는 신흥동에서 나고 자란 이찬우(29) 대표의 공간이다. 오래된 집을 새로 꾸며 3년 전 문을 열었다.

건물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지은 전형적인 2층 양옥집이다.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바지런한 인천 사람의 거처였을 테다. 이 대표는 남은 것을 최대한 살렸다. 한창때 흔적조차 퇴색해 가는 오래된 집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 한 노신사가 익숙한 듯 카페에 들어선다. 싱그러운 정원에 시선을 던진 채 커피 한 모금을 들이마시더니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띤다. 그가 이 대표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집의 첫 주인이에요. 구석구석이 내겐 환해요. 지켜줘서 고마워요.” 노신사는 찬찬히 몸을 일으켜 품에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꺼내 들고 구불구불 비탈길을 나섰다. 꽃바람, 하늘 그리고 돌담… 좁고 언덕진 길 위의 오래된 친구들이 그를 배웅했다.

그날을 이야기하는 이 대표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배어난다. “긴담모퉁이길엔 인천 사람들의 추억과 역사가 커켜이 쌓여 있어요. 이 공간을 곳곳하게 지킬 겁니다.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15년 전, 까까머리로 긴담모퉁이길 꼭대기 집을 올려다보던 소년의 뒤로 오래된 풍경이 잠잠히 흐른다.

📍 싸이프러스 카페 중구 제물량로130번길 18 ☎ 032-777-8993



싸이프러스 카페의 주인, 이찬우 씨

희로애락 함께한 예배당 언덕

— 돌담길의 서쪽, 답동 언덕에 오르면 고풍스러운 로마네스크 식 건축물을 만난다. 1897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자 인천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답동성당(사적 제287호)이다. 1937년에 증축됐으며, 한국전쟁 때 일부 훼손되었다가 복원을 마쳤다.

파란 하늘로 솟아오른 뽕족지붕을 향해 올라가면, 미색(微色) 화강석으로 아치형 출입문과 창문을 장식한 붉은 벽돌 건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위쪽에 언덕을 오르느라 달아올랐던 마음이 차분해진다. 너른 광장을 휘돌아 나온 시원한 바람이 몸의 열기도 식혀준다.

답동성당은 120여 년간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박문학교를 설립하고 해성보육원을 운영하며 배고프고 남루한 시절을 견뎌냈다. 1970~1980년대엔 5·3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술한 역사적 부침을 견뎌내고 오늘날엔 웅장한 고전 결혼식이 거행되기도 한다.

우리 시는 유구한 역사를 품은 대성당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주차·휴게 공간과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지하 4층은 신포지하상가와 연결된다. 언덕 아래 인도까지 지그재그로 연결된 산책로 어디에서나 정겨운 옛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길에 서서 기도한다. 다난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인천의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답동성당 중구 우현로50번길 2 ☎ 032-762-7613



126년간 자리를 지킨 답동성당

예배당 언덕에 오르면,
정겨운 옛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길에 서서 기도한다.
행복을 꿈꾸고 희망을 여미는
인천사람들의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1970년대 박문초 어린이들의 운동장이었던 성당 앞마당

사친 향 켓,
인천의 기억

‘긴담모퉁이길’은 신흥동에서 인천기독병원을 지나 쓰리재로 넘어가는 완만한 오르막길이다. 이름만 들어도 푸근한 이 돌담길은 1907년에 놓였다. 일본인들이 축현역(현 동인천역)과 경인가도(배다리 쪽)를 편하게 오가기 위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신작로다. 새로 난 길, 새로 생겨난 동네는 인기가 좋았다. 일제강점기에 기세등등했던 부윤(현 인천시장)의 관사가 신흥동에 있었고, 광복 후엔 지역 유지들이 터를 잡아 1990년 대만 해도 부촌으로 꼽혔다. 오늘 조봇한 긴담모퉁이길에는 세월이 깃든 집과 오래된 나무, 골목길 사람들이 지긋이 나이 들어가고 있다.

참고 문헌
〈인천 이야기 전집 -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골목, 살아지다〉

1 밤나무마을 울목동이 부자 동네가 된 것은 ‘쌀’ 덕분이었다. 1906년 농상공부의 허가를 받은 쌀 중개업체인 근업소(勤業所)가 울목동 55번지에 문을 열면서 부자 동네가 되었다. 쌀장사로 돈을 번 상인들이 당시로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 ‘밤나무골 새 동네’로 불렸다.

2 옛 인천시립도서관(현 울목도서관 구관)은 잡지조차 흔치 않던 시절, 배움을 닦는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1958년 전국 최초로 열람실 문을 열어 새벽에 줄을 서서 표를 받아 들어갈 정도로 이용하는 학생이 많았다. ‘야간통금’ 시절, 새벽에 도서관에 가다 잡히면 경찰들도 너그럽게 봐주곤 했다.

3 인천기독병원 주변은 한때 인천의 의료 타운이라 할 만큼 김내과, 이이비인후과 등 크고 작은 십수 개의 개인 의원이 있었다. 그 덕에 약국도 덩달아 문턱이 닳았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람들과 인근 김포, 강화, 옹진 섬 주민들이 시내를 방문한 길에 약을 박스나 봉지째 사 가곤 했다.

번성했던 시절 쓰리재(경동, 울목동 일대)에는 양복점이 줄지어 있었다. 한미라사, 김테일러, 화신양복점, 서울라사, 잉글랜드양복점, 자유라사, 신라라사, 백양테일러 등 한창때는 30여 개의 양복점이 성업했다. 이 즈음 인천 극장의 영화 예고편 앞에는 양복점 광고가 몇 개씩 붙었다.



‘바지락 바지락, 바다의 맛입을 속삭임’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오롯이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완성하는 인천 오감 만족 레시피. ‘사그작 사그작’, ‘바지락 바지락’ 고요한 바다의 별판에서 맛있는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번 요리의 주인공은 탱글탱글한 속살에 짭조름한 바다의 풍미가 짝 들어찬 영흥도 바지락. 그 섬 ‘하늘가든’의 허복순 대표가 시원 칼칼한 ‘바지락 고추장찌개’로 정성스럽게 끓여 선보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전재천 포토 디렉터
요리 허복순 영흥도 ‘하늘가든’ 대표 | 스타일링 강지인

어머니의 섬, 영흥도.
평생 차디찬 바람 맞으며 갯벌에 뒹켜 살아왔다.
호미 하나 들고 자식들 키워냈다.

다리가 놓이고, 발전소가 세워지고,
물사람이 밀려들면서 풍요롭던 바다가 달라져 간다.
하나 섬사람들은 오늘도 그 바다와 맞닿아 살아간다.



‘사그작 사그작’ 희망을 캐는 소리

육지에서 멀찍이 떨어진 바다의 별판, 세상은 고요하다. ‘사그작 사그작’, ‘바지락 바지락’. 호미와 바지락이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속삭이듯 들려온다.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간 어머니의 망태기가 어느덧 두둑이 채워져 간다. ‘고맙다, 먹고살게 해줘서.’ 진흙투성이가 된 주름진 얼굴에 말간 미소가 번진다.

영흥도는 섬이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져 쉬이 다다를 수 있어도, 섬은 섬이다. 그 시절 섬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큰 시갯바늘이 한 바퀴는 돌아야 닿을 수 있었다. 섬은 풍요로웠다. 멀리 나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그물만 던져도 놓으며 광어, 우럭... 온갖 바다의 산물이 척척 걸려들었다. 영흥도 사람들은 평생 그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살았다. 갯갯도 지천이었다. 물때만 맞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바다로 나가 호미질을 했다. 허리가 굽고 주름살 패도록, 차디찬 바닷바람 맞으며 갯벌에 뒹켜 살았다. 바다가 그저 내어주는 먹거리가 아니다. 바지락은 모래와 자갈, 개흙이 뒤섞인 서해안 일대, 인천에서는 영흥도에서 많이 나고 자란다. 바닷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고된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바다의 풍미를 짝 채운다. 모진 바람과 햇살, 물살을 받아들이고 견뎌낼수록 그 맛이 깊어진다. 영흥도에서 나는 바지락은 크기는 작아도 살이 짝 차 있고 단맛이 나며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 있다. 그러니 멀리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 밥상에까지 척척 올랐으리라.

바다는 섬은,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다리가 놓이고, 발전소가 세워지고, 물사람이 밀려들었다. 바람, 물결, 조석이 바뀌면서 갯벌이 사라져간다. 호미 하나 들고 자식들 키워내던 시절은 끝났다. 그런데도 섬사람들은 바다와 맞닿아 살아갈 것이다. 자연에 빚지며 살아가는 것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허복순 하늘가든 대표와 사위 안대영 씨

집에서도 즐기는, '백년' 섬의 맛

“뱃길이 끊겨 발목 잡힌 거지, 뭐. ‘길용이’ 색싯감 왔다 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할머니 얼굴이 바다 물결처럼 푸르다. 허복순(68) ‘하늘가든’ 대표는 스물아홉 살에 인천의 명동 신포동에서 영흥도로 시집왔다. 양장을 곱게 차려입고 시커먼 뱃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엔진 소리로 뒤영킨 선내에 숨어 꼬박 선 채로 바다를 건너왔다.

그때도 지금도,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건 바다다. 처음엔 수평선 너머 세상만 그리다 언제부터인가 바다가 좋아졌다. “눈 감으면 바지락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살려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시간이 어느덧 40여 년이다. “돌아보면 참 재밌게 살았어요.” ‘하늘가든’은 30여 년 맛의 역사를 쓴 웅진군 1호 ‘백년가게’다. “재료는 신선하고, 음식은 정직하게 만들어야 해요.” 바다 건너 육지에도 소문난, 섬 아낙 손맛의 비결이다. 바지락을 담백 넣고 얼큰하게 끓여 내는 고추장찌개 맛이 특히 일품. 시어머니께서 바지락에 채소와 고추장을 넣어 볶아 드시는 걸 보고, 국물을 더해 자글자글 끓이니 그 맛이 기가 막혔다. 이 집을 시작으로 고추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온 동네에 그득 들어왔다. 싱싱한 바지락에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은 육수,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풀어 시원 칼칼하게 끓인 한 그릇이면, 가슴속까지 든든하다. 사위 안대영(38) 씨가 최근 밀키트로 개발해 집에서도 ‘백년’ 섬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반갑다.

하늘가든 1994 032-886-3916



싱싱한 영흥도 바지락을 담백 넣고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은 육수에 고추장을 풀어

시원 칼칼하게 끓인 한 그릇, 가슴속까지 든든하다.



재료 바지락 100g, 양파 100g, 애호박 70g, 다진 마늘 5g, 대파 15g, 팽이버섯 20g, 수제비 40g, 육수 400ml

‘바지락 고추장찌개’ 레시피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도,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아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는 맛.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이번 요리는 영흥도 갯벌에서 캐낸 바지락을 담백 넣고 얼큰하게 끓여 낸 ‘바지락 고추장찌개’다. 바다 너머 육지까지 입소문이 난 ‘하늘가든’ 허복순 대표의 아무진 손맛으로 완성했다. 정성 한 스푼, 사랑 두 스푼 담은 요리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만들기

- ① 애호박은 씨 부분은 제외하고 사방 2cm 크기로 썬다.
- ② 양파는 사방 3cm 크기로 썬다.
- ③ 대파는 송송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한다.
- ④ 밀가루를 치대 수제비 반죽을 만든다.
- ⑤ 냄비에 손질한 애호박과 양파, 분량의 바지락을 넣은 뒤 비법 육수를 부어 끓인다.
- ⑥ ⑤가 한소끔 끓으면 수제비를 떠 넣는다.
- ⑦ 다진 마늘, 대파, 팽이버섯을 넣은 다음 수제비가 떠오를 때까지 끓여 낸다.

‘시민 셰프’를 위한 바지락 요리 Tip

조개 하면 단연 ‘바지락’. 백합과에 속하는 바지락은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영흥도 바지락은 일본에 꾸준히 수출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밀물과 썰물이 활발히 들락거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 크기는 작아도 살이 꽉 들어차 있다. 국물 맛이 유독 시원하면서도 풍미가 깊다. 갯 캐낸 바지락은 무침이나 전, 죽 등 어떤 요리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껍데기가 깨지지 않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은 바지락. 여름 산란기를 피해, 제철 바지락을 해감한 후 밀봉해 냉동실에 넣고 두고두고 먹는다.



토요일 저녁,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황.금.토.끼'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코로나19 엔데믹, “반가워! 문화예술”

지난 6월 3일, 엔데믹 후 첫 주말을 맞이한 도심에는 생기가 넘쳐났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짧은 소매 차림으로 거리에 나와 일상을 즐기고, 관객을 맞이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설렘을 안고 무대에 올랐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새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일깨운다. 긴 팬데믹의 끝에서 조심스레 제자리를 찾아가는 오늘,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일상을 준비하고 있을까.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무료 야외 공연(버스킹)

2023 남동 버스킹 블라썸

장소 소래포구 광장, 지하철역, 공원 무대
일정 9월까지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예매 자유 입장, 무료

2023 뮤직 플로우 사운즈

장소 부평역 앞 광장, 부평문화의거리
일정 7월 22일(토), 9월 16일(토)
예매 자유 입장, 무료

황.금.토.끼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일시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예매 자유 입장, 무료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뮤직 플로우 사운즈(위)
한여름보다 뜨거웠던 '2022 언더시티 프로젝트' 현장(아래)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버스킹’

긴 터널 끝, 엔데믹 시대로의 새걸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하나하나 열리고, 마스크를 벗고 마주 앉아 공연을 즐긴다. 음악가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열리는 ‘깜짝 버스킹’으로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있다.

황승빈(30)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사원은 “지난 3년 반 엄격한 거리 두기 지침, 감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실내 공연장을 찾는 발길이 줄었지만, 거리 곳곳에서 열리는 버스킹을 즐기고 문화예술인들을 응원하는 문화와 시민 의식은 한층 성숙해졌다”라며 거리의 풍경을 설명했다.

이에 남동문화재단은 ‘2023 남동 버스킹 블라썸’ 공연을 9월까지 진행, 소래역사관 분수광장, 지하철역, 구월로데오음식문화거리 등에서 시민을 찾아간다. 부평문화재단은 야외 콘서트인 ‘뮤직 플로우 사운즈’를 연다. 7월 22일 부평역 앞 광장, 9월 16일 부평문화의거리 등 곳곳에서 음악이 흐르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무료 야외 공연 ‘황.금.토.끼’도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황.금.토.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노을이 예쁘게 물드는 야외공연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야외 공연이 생소하던 1995년부터 26년째 문화예술인들의 무대가 돼주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열린 'IAP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거리

중구 개항장 거리

1980년대까지 인천 최고의 변화가였던 이곳에 개성 있는 소규모 갤러리와 소극장이 옹기종기 모여 연중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개항로 등 인천역~신평역 일대

아트 마켓 1883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한중문화관 일대
일시 매주 주말 낮 12시~오후 6시
행사 버스킹, 필묵 소품, 그림, 팔찌 등

문화도시 부평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산실, '문화도시 부평'을 기치로 다양한 장르의 유쾌한 소동을 진지하고 짜임새 있게 선보인다.
장소 부평역, 부평시장역 평리단길 일대

2023 핫 업 더 스트리트

장소 부평역 일대
일시 7월 29일(토) 오후 1~11시
행사 디제잉, 스케이트보드 대회, 굿즈 팝업스토어 등

여행하듯...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연극, 공방, 전시 등 자신의 취향을 좇아 문화예술 거리를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위축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와 대동의 판을 여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항장 거리는 언제나 전시를 관람하고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의 거리다. 개성 있는 소규모 갤러리와 소극장이 옹기종기 모여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도든아트하우스, 선광미술관, 서담재 등 오래된 문화예술 공간이 예술가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도 연중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도시 부평'에서는 오는 7월 29일 '2023 핫 업 더 스트리트' 행사의 일환으로 뜨겁고 짜릿한 서브컬처의 유쾌한 소동이 벌어진다. 다양한 사람이 랩도 하고, 전자음악을 만들고, 그라피티도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웃고 즐기는 거리의 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IAP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

오늘은 시, 내일은 추억... '포크송의 부활'

포크송의 유행도 눈에 띈다. 1970년대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포크송'. 인천에도 음악다방이 유행하고, 가수 송창식, 백영규, 산이슬, 양현경 등 인기 가수들이 통기타와 시적인 음악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슬픈 계절에 만나요’, ‘잊지는 말아야지’, ‘순이 생각’... 7080세대의 귀에 익숙한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작곡하고 직접 불렀던 음유시인 백영규(71)는 지난 2019년 문화기획자로 변신해 포크송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동 일대, 서구의 뷰티풀산단 광장,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야외 등 다양한 무대에서 추억의 그 시절을 소환해 관객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백영규의 백다방TV'도 운영 중이다.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는 “포크송이 사랑받는 것은 특유의 따뜻한 감성 때문이다. 답답하고 외로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낼 휴식 같은 음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크송 페스티벌

연수 포크음악 페스티벌

장소 연수아트홀(연수구청 지하 1층)
일시 7월 15일(토) 오후 7시
예매 구청 홈페이지 선착순, 무료



6월의 여름밤,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에서 열린 '동구 포크음악 페스티벌'(오른쪽) 문화기획자로 변신한 가수 백영규씨도 무대에 올랐다.(왼쪽)



고단한 하루의 끝, 퇴근길 음악회

집합 금지, 재택근무 등의 제약으로 많은 사람이 나만의 시간을 소화하는 각자의 방식을 찾게 되었다. 야근 대신 '불금', 회식 대신 '클래식'을 즐기는 문화예술족을 위한 공연이 꾸준히 인기다.

아트센터인천은 목요일 퇴근길을 책임진다. '고단한 하루의 아름다운 마무리, 퇴근길 콘서트'를 주제로 직장인에게 따스한 안부를 전한다. 오는 8월 31일은 관객을 열정의 라틴 음악으로 초대하는 '라틴 이브닝', 10월 26일은 우리에게 친근하고 웅장한 클래식 명곡을 선보일 '오케스트라'가 기다린다.

송도 트라이보울은 7월과 8월 세 번째 금요일인 7월 21일, 8월 18일에 클럽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야근 말고 불금: CLUB TB'는 잠시나마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쉬어갈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다. 7월은 펀킨캣 ^{Funkin Cat}, 8월은 재즈베어 ^{Jazzbear}의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퇴근길 콘서트

야근 말고 불금: CLUB TB

장소 송도 트라이보울 공연장
일시 7월 21일(금), 8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예매 홈페이지, 전 석 1만 원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장소 인천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8월 31일(목), 10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예매 홈페이지, 전 석 2만 원(인천시 직장인 50% 할인)

들리는가 시원^{始原}의 숨소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엔 무수한 동식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공존한다. 새가 없으면 해충이, 최상위 포식자가 없으면 초식동물이 크게 늘어난다. 먹이사슬이 붕괴해 생태교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천시는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가자는 '탄소중립'을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겨 선언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다. <굿모닝인천>이 2023년 세계를 지키는 인천 생태계를 탐구한다. 일곱 번째 생태 탐험을 위해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 지정 4주년을 맞은 '백령·대청 지질공원' 땅을 밟았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홍승훈 포토그래퍼

10억 년을 흘러온 지질의 역사와 눈부신 풍광

바닷물에 젖어 여름 햇살을 반사하는 몽돌들, 10억여 년 동안 나이트로 층층이 쌓여 솟아오른 거암. 2019년 7월 10일, 정부는 서해 최북단 백령면(백령도)와 인근 섬 대청면(대청도, 소청도)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10억 년을 흘러온 지질의 역사와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인천의 섬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이다. 백령도에선 두무진·용틀임바위·진촌리 현무암·콩돌해안·사곶해변이, 대청도에선 농여해변·미아해변·서풍받이·옥죽동 해안사구·검은낭이, 소청도에선 분바위와 월피가 지질명소로 지정되기도 했다. 잔점박이물범과 갯이갈매기, 흰발농게, 대청부채, 저어새 등 동식물도 지질공원의 소중한 자원이다.



대청도 검은낭



백령도 콩돌해안



백령도 용틀임바위



백령도 사곶해변

검은낭
해안 절벽과 갯바위가 검은색을 띠고 있어 ‘검은낭’이란 이름이 붙었다.

콩돌해안
형형색색의 콩돌이 해변을 이루는 곳이다. 크고 단단한 규암이 파도와 바람에 깎여 작은 콩돌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을 흘러왔다.

용틀임바위
장춘포구 서쪽 해안에 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한 바위다. 용틀임바위를 바라보며 우측 절벽으로 돌아가면 남포리습곡을 만난다.

사곶해변
과거 비행기가 이착륙했던 천연 비행장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군사 비행장으로 사용됐다. 규암 가루가 치밀하고 단단하게 쌓여 있어 자동차로 달려도 바퀴 자국이 나지 않는다.

두무진
10억 년 전에 깊은 지하에서 쌓인 모래가 열과 압력에 의해 굳어져 사암이 되었다가 더 깊은 지하에서 고온·고압에 의해 변성된 규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이다. 단층 활동과 풍화작용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

서풍받이
해발고도 100m의 거대한 규암 덩어리가 바다에서 직각으로 솟아오른 해안 절벽이다. 바닷바람이 너무 강해 서풍받이 절벽에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 다만 동쪽의 완만한 사면엔 다양한 식물이 분포한다.

농여해변과 미아해변
하루 두 번, 바다가 들어왔다 나간 자리엔 거대한 모래섬이 드러난다. ‘폴등’이다. 바로 옆 미아해변 바위에는 10억 년 시간이 빚은 연흔(連痕)이 선연하게 남아 있다.

옥죽동 해안사구
바닷물에 밀려온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대한 언덕을 이룬 지대이다. 바람에 실려 온 모래가 쌓인 언덕으로 사막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명소다.

진촌리 현무암
진촌리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진 해안에 분포한다. 검은 현무암에 노란 감람암 덩어리가 파고든 모습이 신비롭다. 감람암은 지표 아래 맨틀(mantle)을 구성하는 암석으로 지구별의 깊은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분바위와 월피
소청도 동쪽 해안을 따라가면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얀 바위가 무리 진 거대한 분바위와 마주한다. 밤이면 하얀 띠를 두른 것 같아 ‘월피’라고도 불린다.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암으로 변한 것이다. 7억 년 전 만들어진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지구 생성 초기 바다에 살던 남조류가 생명 활동을 하며 만든 부산물이 쌓여 형성된 생존 화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대청도 서풍받이



대청도 농여미아해변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백령도 현무암



재인증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향하여

우리 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현재 4년
에 한 번 돌아오는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절차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다.
최근 환경부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계
지질공원 신청을 위한 국내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
진 중이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서류는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인증 심의를 거쳐 세계지질공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소청도 분바위

환경 칼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4주년 의미와 과제

글 노형래 환경 칼럼니스트

지구 생명 탄생의 비밀을 풀 마지막 열쇠가 숨겨
져 있는 섬, 소청도.

움직이는 모래언덕과 10억 년 된 고목나무 바위
가 버티고 있는 섬, 대청도.

10억 년 이상 우리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장군들
이 모여 있는 섬, 백령도.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자리한 인천광역시 옹진
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2019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 4주년이 됐다.

인천시도 그동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를 위해 지질공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가 한 명을 채용해 운영 전반을 맡기고 있다.
3개 섬 주민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직접 지질공원
해설사로 나서 고향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2023년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4주년을 기념해
‘인천 국가지질공원 지질·생태홍보기자단’을 양
성하는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어 오는 7월 13일과 14일 양 일간 소청도
에서 ‘인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현장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백
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큰 기대감
을 품고 있다.

인천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
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들
이 주도하는 지오 트레일(지질여행), 지오 푸드,
지오 기프트, 지오 하우스 등 각종 프로그램 시행
이 필요한 이유다.

백령도 두무진, 진촌리 하늬해변, 용틀임바위, 대
청도 농여해변, 나이테바위, 소청도 분바위, 스트
로마톨라이트 등 지질공원 명소에 해설사 배치,
부스 설치, 홍보판 및 텍 설치 등 거의 모든 사업
이 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지질공원에
대한 시설 설치 등 제도 도입과 홍보 준비는 끝난
셈이다. 이들 3개 섬이 국가지질공원을 넘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려면 주민들과 전문 기관
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황길범

물 푸는 노래, 강화도 열두가락농악의 힘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 저널리스트

“앵차 앵차~” “어떤 사람 앵차~ 팔자 좋아서 앵차~/ 부귀영화로 앵차~ 잘살건만 앵차~/ 이내 팔자는 앵차~ 어이나 하여 앵차~/ 땅을 파서 앵차~ 먹고사나 앵차~”

지난 6월 15일 강화군 불은면 ‘농경문화관’ 연습실. 흥겨운 북소리, 요란한 호적(피리) 소리와 함께 열두가락이 울려 퍼진다. 상쇠 황길범(63) 강화용두레질소리 보유자의 움직임에 맞춰 30여 명의 사람이 북과 장구, 팽과리를 치며 현란한 동선을 피워낸다. 꽃잎이 퍼졌다 접히는가 하면, 승천을 준비하는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농악단의 움직임은 거침없으면서도 일사불란하다.

“하-아, 하-아” 상모를 돌리는 황 보유자의 얼굴에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 리허설이 끝난 강당 바닥은 단원들이 흘린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강화는 섬이다 보니 농사지을 물이 항상 부족했지요. 비가 오면 물을 퍼 모아 저장해야 했는데 그럴 때 쓰는 농기구가 용두레입니다.” 황 보유자는 “용두레를 써서 물을 푸는 작업이 용두레질”이라며 “물을 퍼 올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용두레질소리”라고 말했다. 그 옛날 중노동의 힘겨움을 덜어내고자 불렀던 노동요는 지금 예술로 피어났다.

강화도가 고향인 황 보유자가 용두레질소리에 처음 빠져든 때는 1998년 1대 용두레질소리 보유자인 고^故 최성원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최 선생은 1986년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강화용두레질소리는 2003년 인천시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됐다.

“명절 때면 친구들과끼리 모여 막걸리 마시고 화투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재밌게 놀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징 치고 팽과리 두드리고 피리 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면에서 민속놀이 지도를 하고 계시던 최성원 선생님을 찾아갔지요.”

농악은 흥겨웠지만 실제 용두레질만큼이나 쉽지 않았

다. 머리는 상모를 돌리고 손은 징을 잡고 발은 동선에 맞게 펄쩍펄쩍 뛰고 나면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쭈셨다. 스승은 열정과 성실로 용두레질소리를 배우는 그를 예뻐해 강화 구석구석을 데리고 다니며 후계자로 키우고자 많은 공을 들였다. 2010년 그는 용두레질소리 상쇠 보유자로 지정받는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올가미를 씌운 것 같습니다. 하하하.” 황 보유자는 “스승님이 나를 업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며 “저 역시 올가미를 씌울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마땅히 하겠다는 분이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껄껄 웃었다. 힘이 들면서 수입은 적어 직업으로 삼기엔 고민이 되는 용두레질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선뜻 나서는 MZ세대가 있을 리 없다. 매주 수요일 모여 연습하는 30여 명의 보존회 회원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대부분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강사 일로 바쁜 부인 전영분(64) 씨까지 회원으로 끌어들여야 했을 정도라니….

“강화의 전통문화, 토박이인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상모에 달린 하얗고 긴 형짚 ‘돌모’가 여름 하늘을 향해 크게 원을 그렸다.



황길범 강화용두레질소리 보유자와 보존회 회원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유럽문화수도로 위대한 변신

리버풀 Liverpool 도시재생 스토리

허름한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기 시작해 전설적 뮤지션으로 이름을 남긴 비틀스의 고향, 리버풀. 과거 산업혁명과 노예무역을 통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리버풀의 노후한 항만시설은 문화유산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그 결과 리버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쇠퇴한 항만도시가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례를 리버풀을 통해 살펴본다.

글 이현아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 학예연구사

인천을 닮은 국제 항구도시

영국의 중서부이자 잉글랜드의 북서부에 위치한 리버풀은 한반도의 중서부, 남한의 북서부에 위치한 인천과 비슷한 지역성을 띤 도시다. 북대서양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곳에 자리한 리버풀은 이 같은 입지적 장점으로 영국의 중요한 항구도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715년 영국 최초로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갑문이 건설되어 일찍이 큰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부두시설 주변으로는 국제 항구도시

의 면모를 보여주듯 부를 반영한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졌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해 영국 무역 대부분이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1801년 인구 7만 8,000명이던 리버풀은 1901년 68만 5,000명이 사는 대도시가 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대영제국 제2의 도시’로 손꼽히게 되었다. 인천 역시 입지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 항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을 통해 각종 근대 문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 이른다.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리버풀 출신 밴드 비틀스의 동상

영국 이민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

리버풀은 영국 이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1807년 영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던 노예무역이 폐지되면서 리버풀의 선박은 수많은 이민자로 채워졌다. 이곳은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에게 주요한 출발항이었다. 영화 ‘타이타닉’을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RMS 타이타닉호를 포함한 여러 유명 이민선의 모항이 바로 리버풀이었고,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승객과 선원 중 리버풀 출신도 상당수였다.

더불어 리버풀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각국 이민자가 첫발을 내디딘 입국항이기도 했다. 1860년대 후반 해운 회사들이 중국인 선원을 고용하면서 중국 이민자가 처음으로 리버풀에 유입되었고, 리버풀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인 공동체의 본거지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인 하와이 이민이 인천을 통해 시작되었고, 19세기 말 형성된 인천 차이나타운도 현재까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은 인천과 공통점이 많다.

근대 교통 발달에 선도적 위치 차지

리버풀은 근대 교통이 발달하는 데도 선도 역할을 한 도시다.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1830년에는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영국 최초의

도시 간 철도가 건설되었다. 철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상품을 효율적으로 리버풀 항구에서 영국 전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했으며, 세계 최초로 상품뿐 아니라 승객까지도 정시 운송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또 1893년에는 세계 최초의 고가^{高架} 전기철도가 완성되었고, 1930년에는 영국 최초의 지방 공항도 건립되었다. 인천도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 간 철도가 건설된 곳이자 산업화의 기본 조건인 교통 발달이 다른 도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리버풀과 유사하다.

쇠퇴한 항만시설 재건해 문화도시의 메카로

리버풀은 영국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전초기지가 되어 런던 못지않게 전쟁의 피해가 막심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번성했던 리버풀은 전쟁의 피해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쇠락해 갔고, 점차 그 독보적 위치를 잃어 갔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리버풀의 주력 사업이었던 항만과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률이 17%까지 치솟았다.

리버풀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바로 리버풀이 지닌 문화유산이었다. 리버풀시는 항만시설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 건축물을 개조해 1988년 현대미술에 집중하는 세계적 미술관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을 유치했다. 이어서 1990년에는 비틀스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틀스 박물관^{Beatles Story}을 개관해 전 세계 관광객을 유혹했다. 이와 함께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을 리모델링하고 국제노예박물관^{International Slavery Museum}과 리버풀 박물관^{Museum of Liverpool}을 개관하는 등 산업혁명과 노예무역의 거점 항구였던 리버풀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 공간에 중점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과거 영국의 관문 역할을 했던 항구는 이제 문화도시의 메카로 재탄생했다. 리버풀의 지역성을 담은 문화시설이 부두를 에워싼 붉은 벽돌 건물에 집중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식음, 쇼핑, 숙박, 업무 및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어져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낙후되었던 항만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리버풀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단지로 부상했다.

유럽문화수도 선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은 항만시설의 선구 역할과 역사적 중요성,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리버풀-해양 무역도시^{Liverpool-Maritime Mercantile City}’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하지만 유네스코는 리버풀이 항구 주변에 축구장과 신식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벌여 문화유산의 가치가 손상되었다며 2021년 7월 그 자격을 박탈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매년 유럽의 도시 중 한 곳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선정해 1년 동안 범유럽 차원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최고의 기회를 얻곤 했다. 리버풀시는 체계적 준비 끝에 영국의 버밍엄, 브리스톨 등과 경쟁해 2008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약 50만 명이 거주하던 리버풀은 누적 방문객 수 7,170만 명(2022년 기준)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면서 리버풀은 다시 한번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리버풀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비엔날레, 페스티벌 같은 국제적 이벤트 유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 레저, 상업 그리고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끊임 없이 도전하고 있다. 관광객은 비틀스 멤버의 이름을 딴 리버풀 존 레논 공항^{Liverpool John Lennon Airport}을 통해 리버풀에 첫발을 디딘 뒤 리버풀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과 공연장을 방문하고, 각종 상업시설에서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며, 도시 전역에 산재한 비틀스의 흔적을 성지순례하듯 따라간다. 그렇게 리버풀이라는 도시를 소비하고, 리버풀 시민들은 연계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다.

인천과 유사한 지역성을 띤 리버풀의 성공 스토리는 인천 내항을 활성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로 향해 가는 인천이 눈여겨봐야 할 본보기다. 문화유산을 활용해 장기 계획과 시행으로 차근차근 이루어간 리버풀의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을 거울 삼아 인천도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한 세계 무역의 중심지, 로열 앨버트 독



인천대로 지하화, 2027년 준공 목표



인천대로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총사업비 5,041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총연장 4.5km)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시는 지하도로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시 인천대로재생과 032-440-4182

29개 해수욕장, 7월 1일부터 순차 개장

오는 7월 1일 중구 왕산·을왕리·하나개해수욕장과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을 시작으로, 7월 7일 옹진군 서포리·장경리·십리포해수욕장 등이 개장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은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해 백사장·편의시설·안전시설·지원시설 등을 지속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군·구 공무원과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경·소방 등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된다.

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93

택시 기본 요금, 7월 1일부터 4,800원 인상

우리 시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 택시는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모범 및 대형 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택시 요금 기본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고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 시간 할증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 40%로 조정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시 택시운수과 032-440-3804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어린이병원 1곳 확대

우리 시는 올 하반기 서구 검단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해, 총 3개소로 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평일 야간(오후 9~11시)과 토·일·공휴일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현재 2개소(미추홀구 연세소아과, 서구 청라연세어린이병원)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소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길병원에 이어 지난 4월부터 인하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3252

인천시립요양원 오는 9월 준공

우리 시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시립요양원이 오는 9월 준공한다. 남동구 도림동에 들어서는 인천시립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과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다. 지상 3층, 연면적 2,984.25㎡ 규모로 1층은 업무시설 및 식당, 2층과 3층은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 배치된다. 입소 정원은 104명으로, 수탁 기관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5

인천시청 애플광장, 여름꽃으로 새 단장

인천시청 애플광장 사계절 정원이 ‘신비의 블루’를 테마로 여름꽃 27종, 2만 5,000여 본을 심어 새롭게 단장했다. 아게라텀, 러시안세이지, 라벤더, 스토크시아 등의 여름꽃을 식재해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함과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3월 조성된 사계절 정원은 형형색색의 꽃과 조형물이 어우러져 인천시민에게 인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78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금 확대

우리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 중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500만 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의 자립지원금은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하고 만 19세 이상 퇴소할 경우에 지급된다. 우리 시는 정부 자립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 없이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시 여성정책과 032-440-2759



대한민국 제1호 스마트관광 여행 앱

인천@지



앱 다운로드하고
이벤트 참여하기!!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https://m.incheoneasy.com/>

인천을 여행할때? 인천@지 다운받고 할인혜택 받자!





‘인천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우리 시는 암 치료를 마친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암 생존자는 암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돌봄 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해당 센터를 운영하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병증 및 2차 암 관리, 암 종별 특성화 운동·식생활 교육, 집단심리지지·미술치료·산림치유, 직업 복귀 교육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1594

영종관리과 신청사 운서역에 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관리과 신청사 사무실을 운서역 공영주차장(5층) 신청사로 이전했다. 영종관리과는 기존 사무실은 영종하늘문화센터에 위치해 부동산, 환경, 건축, 공원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이 방문하기 불편했다. 이번에 이전한 신청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기존 사무실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한 후 어학, 취미 생활, 인문학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032-453-7715

폐우산 재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우리 시는 버려지는 우산을 머리끈, 앞치마, 손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우산 재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폐우산은 원단, 고철, 플라스틱 등 세 가지 이상의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자원순환녹색나눔장터나 미추홀구 인천자원순환가게 19개소 등에서 폐우산을 수거하며 재활용 제품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내 알맹e가게에서 전시, 판매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74



IMAGE NEWS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 우리 시의 1,000만 도시 프로젝트



- #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 # 재외동포 전용 주거 단지 조성
- # 재외동포 전용 의료 서비스, 관광 프로그램 마련



- # 한상비즈니스센터 설립
- # 한인회관 조성 및 한인 단체 본부 유치
- # 주요 재외동포 행사 지속 개최



- # 재외동포 민간 경제·외교 사절단 확보
- # 인천시 자문관으로 세계 각 분야 재외동포 위촉
- # 인천시 주요 행사에 재외동포 초청



- #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 #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문화 행사 활성화
- # 재외동포 관련 학술 행사 및 포럼 개최

COUNCIL NEWS

신성장 산업 육성사업 적극 지원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은 최근 열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신성장 산업 육성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는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이끌 초석이 될 전망이다. 완공 후에는 현장 실무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 인력이 집적돼 미래 인천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센터 모두 내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상상플랫폼 및 월미바다열차 현장 방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내항 8부두 내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공사 현장 및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 운영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주요 관광 거점 인프라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뤄졌다.

법률고문 2명 추가 위촉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6월 12일 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최우식(법무법인 유한 랜드마크) 변호사에 대한 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인재로 재정·입법·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담당한다. 또 최우식 변호사는 '지방법회의원 후원회 지정 금지 사건'(2022년 11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소원을 담당했던 변호사로 헌법소원 전문 분야의 자문을 맡게 된다.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발자취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한다.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 뛰어온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그 눈부신 성과와 기록을 숫자로 살펴보자.

* 실적 기준: 2022년 7월 1일~2023년 5월 22일

시민 삶에 유쾌한 변화

- 시민 삶을 바꾸는 조례 제개정 **207**건 | 의원 발의 **101**건
- 동의·결의·건의로 시민 목소리 대변 **154**건
- 시민 청원·진정 처리 **83**건
- 의회 사랑 나눔 실천 **7**회 **3,648**만 원

시민의 눈으로 공정·투명하게

- 본회의 의원 출석률 **97%**
- 의회가 처리한 예산 **20조 684**억 원
기금 **2조 9,029**억 원
- 불합리한 행정 개선 요구 **746**건
- 시정 질문·5분 자유 발언·주요 현안 점검 **204**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 활동

- 의정 모니터 제안 **75**건
- 토론·간담회 개최 **26**회
- 현장 방문 **41**회
- 의원 연구 단체 활동 **29**건
- 자매도시 우호 교류 **5**개국 **6**회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의회

- 의정 아카데미 개최 **26**회 **667**명 참가
- 누리집 방문 **38**만 **6,417**명
-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21**만 **2,411**명
- SNS·웹진 조회수 **42**만 **7,456**회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웹진
QR코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의회사무처) 032-440-6136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①전화 ④홈페이지 ⑤이메일 ⑥팩스

INFO BOX

1

경인권역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내용

-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곁에 있을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렴하게 이용
- 병원 위치: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경인권역재활병원)
입원 대상: 발병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활 대상 환자
(※ 뇌졸중, 척수 손상, 신경계 손상 관련 질환자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

입원 절차: 상담(전화 또는 내원) → 진료과 확인 → 입원 결정 및 수속
문의: ① 032-899-4438, 032-899-4439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내용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출 것
 -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 문의: ① 032-749-7802

3

1인 가구 지원사업
‘일(-)타 생활 - 당신 근처 마음 나누기’

내용: 전통문화와 예절 교육
기간: 7월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장소: 연수구가족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연수구 청년 1인 가구
문의: ① 032-851-2740

4

월미공원 둘레길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 산책

내용

- 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조망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산책길 주변으로 총 8,000여 본의 산수국이 식재되어 있음
 - 둘레길 콘크리트 옹벽에 산수국과 어우러지는 벽화 조성
 - 숲속 갤러리 작품 전시, 숲 해설 프로그램, 수국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 문의: ① 032-440-5942



5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안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지원
- 발급 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 기간: 11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11만 원
발급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혹은 모바일 앱
- 문의: ① 032-455-7187, 032-455-7188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6

‘현금 없는 인천 버스’ 확대 운영

내용

-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 없는 인천 버스’를 7월부터 34개 업체, 111개 노선, 951대로 확대(인천시 준공영제 노선의 50%에 해당)
 - 교통카드가 없는 승객의 경우 계좌이체 혹은 모바일 앱으로 간편 충전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구입, 차량 내 비치된 교통카드 구입 등으로 버스 이용
- 문의: ① 032-440-3985

7

농기계 임대 및 운송비 지원

내용

-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소정의 임대료로 대여하고 운송비를 지원함
- 신청 자격: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 영농인
신청 방법: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원하는 농기계를 3일 전에 예약
문의: ① 032-440-6932, 032-440-6939

8

여성복지관 2023년도
제3기 사회교육 강좌 수강생 모집

교육 기간: 7월 3일~9월 23일

교육 프로그램: 전문 기능 과정, 실용·창업 과정, 문화 아카데미 과정 등 88개 강좌

신청 자격: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모집 인원: 1,595명

모집 기간: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문의: ① 032-440-6530, 032-425-1372

④ www.incheon.go.kr/www

9

2023년 청소년 자살 예방 웹툰 공모

모집 기간: 7월 31일까지

공모 주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의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

공모 대상: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공모 방법: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ispc.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문의: ① 032-468-9917

10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초성 퀴즈 이벤트

기간: 7월 31일까지

초성 퀴즈

- 우리 몸이 중요하듯 ‘모으기’도 중요합니다.

-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으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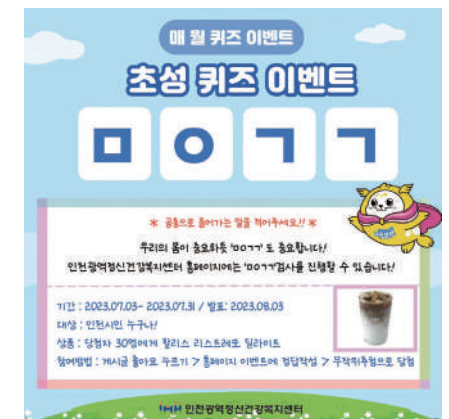
: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찾아라!

참여 방법

- 홈페이지의 이벤트 참여 페이지에 정답 기재

④ https://maro.imhc.or.kr/user/event/list.php

상품: 할리스 리스트레도 딜라이트(30명)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1

7월 인천 지역 행사 안내

제4회 新송도해변축제

일시: 7월 29일~8월 6일 낮 12시~오후 6시
장소: 송도달빛공원 일원(송도국제교~컨벤시아교)
프로그램: 개막 공연, 야외 전시, 물놀이장·인공백사장·놀이존 운영
문의: ㉠ 032-749-7334

송도미래축제 버스킹 'Would You'

일시: 7월 15일 오후 5시 30분~7시 30분
장소: 송도커널워크 차 없는 거리(예정)
프로그램: 대학교 동아리, 지역 버스커 공연
문의: ㉠ 070-4169-6465

청춘을 노래하는 시니어 예술단

일시: 7월 15일 오전 11시~낮 12시
장소: 청학아트홀
문의: ㉠ 032-821-6229

연수프린지페스티벌

일시: 7월 26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청학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문의: ㉠ 032-821-6229

12

인천 지역 도서관 행사 '풍성'

미추홀도서관_인문 고전 토의 세미나

일시: 7월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대상: 성인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로봇과 자동차의 미래

일시: 7월 15일 오후 2~3시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교과서가 쉬워지는 주말여행

일시: 7월 15일 오전 11시~오후 1시
대상: 초등학교 자녀 및 부모
문의: ㉠ 032-440-6665

미추홀도서관_이지나 작가와 글쓰기 특강

일시: 7월 26일 오후 7~9시
문의: ㉠ 032-440-6665

청라호수도서관_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일시: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11시 50분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성인 ADHD의 삶과 소통, 관계 회복

일시: 7월 1일 오후 1시 30분~3시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일시: 7월 3일 오후 3시~4시 30분
문의: ㉠ 032-563-8044

영종하늘도서관_나를 브랜딩하는 여행 인문학

일시: 7월 12·19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746-9139

영종하늘도서관_호랑이 귀빠진 날 공연

일시: 7월 15일 오후 3~4시
문의: ㉠ 032-746-9139

영종하늘도서관_독서 및 보드게임

일시: 7월 31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746-9139

미전도서관_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강좌

일시: 7월 3·10일 오전 10시~낮 12시
문의: ㉠ 032-590-2833

미전도서관_하연 작가와의 웹툰 교실

일시: 7월 31일~8월 3일 오전 10시~오후 1시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문의: ㉠ 032-590-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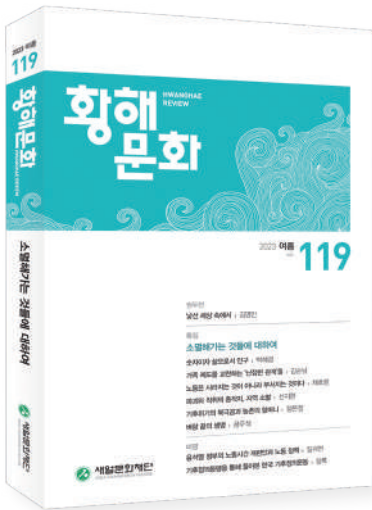
전 지구적 시각으로 지역적 실천 모색

<황해문화> 창간 30주년 120호 기념 심포지엄
7월 8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도서관에서 개최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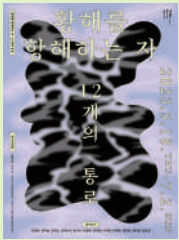
이광일 정치학자가 사회를 맡은 2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세션에서는 김정
회원 에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반폭력으로서 돌봄 정치’, 장석준 출판&연구공동
체 산현재 기획위원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란 주제 발표를 한다. 김선철 기후정
의활동가는 ‘기후정의운동: 존엄한 삶을 향한 ‘을들’의 집합적 힘’을 발표하며,
이승원 서울대 선임연구원과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조명우 인
하대 총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의 축사도 준비됐다.
1993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계간지로 출발한 <황해문화>는 명실상부 한
국의 비판적 공론장을 대표하는 잡지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100호 출간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선 ‘통일과 평화 사이’에서 ‘황해’의
위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질곡에 빠뜨려온
분단과 전쟁의 엄중함을 기억하면서도 선부른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경계
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 주체와 장소, 방법에 관해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지용택 이사장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황해문화>는 ‘전 지구
적 시각, 지역적 실천’이라는 창간 당시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
엄이 앞으로 <황해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진보적
전환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32-887-6375



07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2023 트라이보울 기획 전시
‘황해를 향해하는 자: 12개의 통로’
트라이보울 전시장
7월 2일까지
☎ 032-832-7992



동상이몽 - ‘큐레이터의 선택 스피노프展’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9월 3일까지
☎ 032-440-6734



외연과 심연
(Denotation and Profundity)
인천아트플랫폼 B 전시장1
8월 15일까지
☎ 032-760-1000



Re-wild garden: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 032-760-1000



이달의 공연

01 토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인천아트센터 콘서트홀
7월 1일 오후 5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032-453-7700



[황.금.토.끼] 인천
브라스밴드 오케스트라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관악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7월 1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1



02 일

이우진
하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7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14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열전 I: 피아니스트 임주희’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420-2781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7일 오후 7시 30분,
7월 8일 오후 27시,
7월 9일 오후 2시
VI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 1566-6551



이달의 공연

09 일

리조이스 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공연
‘베토벤 전원교향곡’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전 석 1만 원
☎ 010-2864-0303



14 금

콘서트 오페라
‘돈 조반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7월 15일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032-453-7700



15 토

제90회 연수구
토요문화마당
연수 포크음악
페스티벌
연수아트홀
7월 15일 오후 7시
전 석 무료
☎ 032-749-7294



인천 체임버 앙상블
창단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15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70-4110-8290



19 수

2023 커피 콘서트 V
- 김중서 ‘In my life’
동구문화체육센터
7월 19일 오후 2시
전 석 1만 5,000원
☎ 1588-2341



20 목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답’ Ⅲ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20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2023 썸머 페스티벌
- 조윤범과 파르렛
엑스의 렉처 콘서트
‘음악사 하이라이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0일 오후 5시
전 석 1만 원
☎ 032-420-2737



21 금

2023 썸머 페스티벌
- 박종성 & 브랜든 최 듀오 콘서트 ‘여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1일 오후 5시
전 석 1만 원
☎ 032-420-2737

22 토

국악 뮤지컬 ‘우리
집에 집신이 살아요’
학산소극장
7월 22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032-866-3993



청소년 음악회
‘실험실 콘서트’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22일 오후 3시
전 석 1만 원
☎ 032-453-7700



23 일

지브리 vs 마블 OST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7월 23일 오후 4시
VIP석 9만 9,000원,
R석 7만 7,000원,
S석 5만 5,000원,
A석 3만 3,000원
☎ 010-3092-5828



안지수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7월 23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023 썸머 페스티벌
- 남형주 리코더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3일 오후 5시
전 석 1만 원
☎ 032-420-2737

26 수

문화가 있는 날
- 한여름 밤의 추억 음악회
학산소극장
7월 26일 오후 7시
전 석 무료
☎ 032-866-3993

27 목

인천시립합창단
‘합창의 매력에 빠져봐’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7월 27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032-420-2784



29 토

어린이 체험학습
뮤지컬 ‘틀려도 괜찮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7월 2930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 석 5만 원
☎ 02-555-0822



인천클라리넷앙상블
제31회 정기연주회
‘Feeling in classic’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7월 29일 오후 5시
전 석 1만 원
☎ 032-424-7117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이달의 드로잉 깡이부리마을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도시성 작가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전업 작가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도시를 산책하며 만난 사람과 풍경을 순수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낸다. 서울과 인천에서 19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300여 회의 그룹전에 참가했다. 현재 인천민족미술인협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인천미술협회 회원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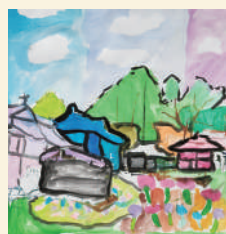


도시성 작가의 채색 가이드

만석동 해안가에 위치한 깡이부리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 있던 묘도를 매립해 만든 마을이다. 1930년대 이곳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 숙소도 지어졌는데, 여러 채의 사택이 하나의 지붕으로 꼭 이어져 있고, 지금은 100여 미터에 걸쳐 그 시절 집들이 남아 있다. 이제는 사라진 쪽방촌인 것. 오랜 흔적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이곳에 동네 사람들이 정성으로 키운 화분들이 울망줄망 정겹게 자리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 2023년 6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채린 서구 가정로



이승연 남동구 인주대로



이형주 부평구 경원대로



진연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채인아 남동구 아암대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7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시민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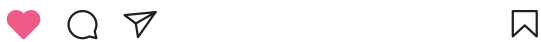
노형준 남동구 만수로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달동네박물관에서 1970년대 교복을 입고 그때 그 시절 고등학생으로 변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본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과거로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송현근린공원 #달동네박물관 #말죽거리잔혹사

박호영 남동구 정각로



주말이 되면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곤 하는데요, 영종도 구읍벚터는 항상 첫 번째로 생각나는 곳입니다. 맛집도 많고 시원한 바다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최애 나들이 장소랍니다.

#영종도구읍벚터 #최애주말나들이 #맛집가득 #시원한바다풍경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oodmor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7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경빈 계양구 경명대로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에 다녀왔습니다. 아라타워전망대에서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산책로와 벤치도 잘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고 여유로운 나들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경인아라뱃길 나들이 어떠신가요?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아라타워전망대 #멋진풍경

박미영 남동구 담방로



아버지, 동생과 함께 계양산을 올랐습니다. 70세가 넘은 아버지께서 딸들과 등산하려고 선물로 등산화까지 준비해 주셔서 안전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계양산둘레길 #가족운동화 #아버지의선물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

7월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선 8기 인천시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뛰어왔습니다.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 이뤄냈습니다. 말도 많고 불가능해만 보였던 '재외동포청 유치'를 해낸 것이 그 예입니다. 우리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굿모닝인천>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인천의 가치를 발굴해 인천시민들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시의 철학과 방향을 정확히 전달하는 '시민-시정부 간 소통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성큼,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인천의 산과 들, 바다에도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이따금 보양식 드시며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은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결심했다 지키지 못 한 일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兕明 김진국 -



'역사의 순간, 춤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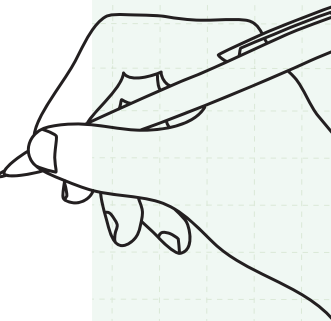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기획한 기사를 구현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1주년, 특별 기획. '역사의 순간, 춤이 되다'. 무용단 섭외를 시작으로 장소 선정과 섭외, 안무 협의, 사진·영상 촬영 콘티 작업 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굿모닝인천> 촬영 스태프와 인천시립무용단이 한 팀으로 움직이기까지, 팍팍한 일정 속 부족함은 인천을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송도국제도시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트라이보울... 원도심과 신도시를 중흥무진하는 촬영에 폭우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 '인생이란,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인천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인천'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간의 힘을 믿는, 정경숙 -

또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온기

골목길TMI 연재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특집호에서 첫 회를 시작, 사계절을 견고 기록했습니다. 봄물이 흠뻑 오른 포구, 여름 햇살을 지고 서있는 돌담길, 신포동의 낭만적인 가을밤, 수인골물시장 눈 내리던 날... 모든 풍경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호엔 긴담모퉁이길을 걸었습니다. 담동 언덕에 오르자 정겨운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추억, 또 하나의 온기를 마주합니다. 골목이 살아있어서, 인천사람이라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 긴담모퉁이길 예배당 언덕에서, 최은정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대변인실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

인천이 ‘1,000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날아오른 건 지난 6월 5일이다. 전 세계 193개국 750만 재외동포의 거점인 재외동포청이 송도국제도시에 개청한 것이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저절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다. 인천시가 장장 9개월간 흘린 땀의 결실이었다. 이 기간 우리 시는 유정복 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강조했다. 그렇게 재외동포청은 마침내 인천의 품에 안겼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인천의 꿈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18년 전이다. 인천의 시조(始祖) 비류는 인천 땅에 비류 백제를 세운다. 한반도에서 고대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탄생했는데 백제가 나라를 세운 땅이 인천이었다.

고려 시대, 인천에선 7명의 왕비를 배출한다.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호족 세력 인주(仁州)인천) 이씨 집안이 80년간 정권을 장악하며 ‘칠대어향’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39년간 ‘고려의 수도’(강도江都 시기, 1232~1270)가 되어 몽골군과 대적한 땅도 인천이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이 탄생하고, 세계 최고(最高)의 목판인쇄술을 엿볼 수 있는 ‘팔만대장경’이 꽃 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국립세

계문자박물관이 인천에서 개관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개항기, 인천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온몸으로 막아낸다. 외세의 강압에 따른 개항이었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신교육, 종교에서부터 서구식 근대 공원, 음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가 인천을 통해 들어왔다. 인천은 그렇게 ‘전국 최초, 최고’의 역사를 써 내려가며 우리 것으로 소화한 서구 문물을 서울로, 전국으로 전파했다. 인천은 딱딱한 음식을 잘 씹어 몸으로 공급한 우리나라의 치아이자 인후였다.

한국전쟁 당시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으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우리 시는 오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행사를 범국가 행사로 승화해 인천이 안보와 평화의 도시, 호국 보훈의 도시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인천직할시(1981), 인천광역시(1995) 시대를 흐르며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인천시정부’가 1주년을 맞았다. 민선 8기는 단순한 지역 발전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을 향해 황소처럼 뚝뚝뚝 걸어왔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그 첫걸음이었다. 우리 시는 APEC, 해사법원, 고등법원, 반도 체특화단지 유치를 향해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소청도 분바위와 홍합

당신을 기다립니다

소청도엔 ‘분바위’가 있습니다.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얀 암석입니다.

분바위 앞바다 물이 빠지면
갯티길이 드러나고 ‘섬(홍합)’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분바위를 비롯해 백령도 두무진, 대청도 서풍반이 등
백령·대청도엔 ‘국가지질공원’ 명소 열 곳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는
눈이 시린 바다와 기암괴석이 준비한
서해5도로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